노인전문요양시설의 프로그램공간 계획*

- 공간의 위치 및 구성요소, 이용행태 조사를 통해 -

이 민 아(군산대 교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정서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공간의 위치 및 공간구성요소,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시설입소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활동참여와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공간 계획을 위한 정보제공을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7월 기준 전국 78개소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중 입지와 평면유형, 그리고 시설종사자의 방문 및 답사허가, 연구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서울 3개소, 부산 3개소, 인천과 대전 각각 1개소, 광주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라북도 5개소 등 총 15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도면 등의 자료를 수집한 뒤,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접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공간에 대한 관찰답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프로그램 실시 공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시설에서 2-3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주실은 주로 소그룹 프로그램, 특히 인지, 미술, 종교 등 직원과 노인이 1:1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노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주위의 방해요소 없이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경을 원하는 노인들의 거처문제가 있으며 공간 내에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로 정적인 프로그램에 적합하였다.

둘째, 테이블과 의자, 소파 및 TV와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휴게홀과 복도에서는 개방된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행동이 일어나므로, 특별히 집중이 필요 없는 동적인 프로그램, 즉 레크레이션, 운동, 요리, 음악,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었고, 면적이 충분한 경우 모든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복도의 코너를 이용해서 소그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주로 소그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실이나 작업치료실은 주로 시설의 지하나 1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거주실을 용도전환하거나 기타 공간과 겸용하는 경우 거주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의자, 각종 프로그램 도구를 넣어둘 수 있는 수납장 등이 있었는데 지나친 전시물은 통행에 장애를 가져왔고, 공간이 넓은 경우 주름문을 이용하여 공간을 두개로 이용할 수 있었다.

넷째, 식당에서는 주로 요리프로그램이 소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시설 행사나 이벤트 등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시설의 1층에 위치하여 신체적으로 다소 독립적인 노인들만이 참여가 가능했고, 각 층에 간이주방이 있는 경우 입소노인의 이동이 편리한 반면 환기에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C00235)

문제가 있었다.

다섯째, 시설의 지하나 1층에 위치한 강당에서는 주로 생일잔치나 공연 등의 사회화 프로그램과 종교, 레크레이션 및 음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상과 무대 음향설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시설에 따라 테이블을 배치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깐 뒤 이용하고 있었고, 강당 내에 녹화시설이 구비된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거주실에 누워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